



보도 일시	2022. 12. 7.(수) 17:30	배포 일시	2022. 12. 7.(수) 16:00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	책임자	과 장 정규삼 (044-215-2810)
		담당자	사무관 오성진 (eyespen80@korea.kr)

부총리 주재, 「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」 개최

-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‘22.12.7(수)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 기관·학계·국제 신용평가사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이번 간담회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거시 경제 여건, 금융·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
 - ※ 참석자 :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,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, 오석태 한국SG증권 본부장, 박석길 JP모건 본부장, 신인석 중앙대 교수, 박해식 금융연 선임연구위원, 백인석 자본연 거시금융실장, 이성희 前 JP모건 지점장
-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금융·외환시장 및 민생·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하며,
 -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이면에는 정부·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, 국가·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되어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,
 -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
- 참석자들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였음

-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며,
 - 특히,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크고, 주요국 통화긴축 향방 및 중국 봉쇄 조치 완화 시점 등에 따라 하반기 회복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
- 한국경제의 경우,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,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공감
 - 수출은 2분기부터 반도체 중심으로 둔화가 시작되었으며, 미국과 유럽의 긴축 기조, 중국경제 상황, 반도체 재고조정 사이클 등을 주요 변수로 언급
 - 소비는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 정상화 과정이 2023년 상반기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며, 물가·금리 상승, 자산가격 조정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의견 제기
- 이에 따라,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% 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, 대외여건 악화 심화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
- 한편, 경기둔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에 유의 해야 한다는 점도 참석자들은 강조하였음
 - 단기자금시장 안정,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연관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사전 관리,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 금융 안정이 중요하며,
 - 이와 함께, 경기가 둔화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,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
- 참석자들은 정부가 이러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,
 -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추진하고, 경기 둔화 국면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하방 위험에 대해 미시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였음